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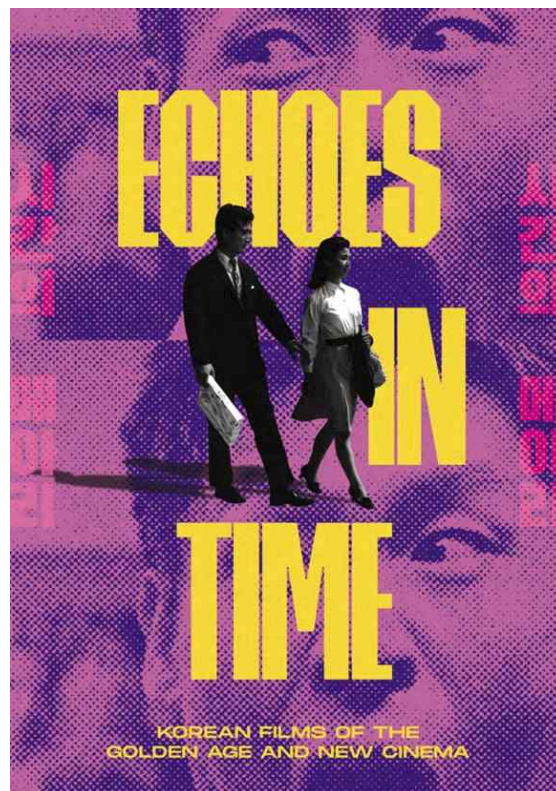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영국영화협회(BFI) x 한국영상자료원(KOFA) ‘시간의 메아리: 황금기와 뉴 시네마의 한국영화’ 공동기획 -한국영화 30편 대규모 기획전 개최

BFI 사우스뱅크에서 10월 28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개최
한국영화 전성기인 1960년대 황금기와 뉴 코리안 시네마(1996~2003)
대표작 총 30편 상영
<쉬리> 4K 복원판 및 <접속> 4K 리마스터판 등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시간의 메아리: 황금기와 뉴시네마의 한국영화'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이 영국영화협회(BFI)와 공동기획한 '시간의 메아리: 황금기와 뉴시네마의 한국영화(Echoes in Time: Korean Films of the Golden Age and New Cinema)(이하 시간의 메아리)' 기획전을 오는 10월 28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영국 BFI 사우스뱅크에서 개최한다.

영상자료원은 국내외 영화와 영상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는 국내 유일 공공 영상 아카이브이다. 영상의 보존, 복원과 더불어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알리는 역할 역시 아카이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객에게 한국영화가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전 세계 다양한 기관들을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특히 올해 5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 뉴욕 필름 앤 링컨 센터(Film at Lincoln Center)와 공동기획한 한국영화 특별전을 이어, 영국 런던에서 대규모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 기획전은 주영한국문화원의 협력과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으로 진행된다.



▲ <여판사> 스틸



▲ <돌아오지 않는 해병> 스틸



▲ <안개> 스틸



▲ <워커홀에서 만납시다> 스틸

□ 한국영화 르네상스 두 시기 대표작 30편 상영

'시간의 메아리'는 한국영화사에서 획기적인 기술적, 스타일적, 주제적 혁신이 일어났던 두 시기에 초점을 맞춘 기획전이다. 첫 번째는 1960년대의 황금기, 두 번째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물결인 뉴 코리안 시네마(1996~2003)이다. 이 두 르네상스 시기는 다양한 장르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으며, 장르의 스텔과 예술적 감성을 성공적으로 결합했다. 한국영화는 <기생충>의 열풍으로 전 세계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도 역사적 및 사회경제적 도전 속에서 수십 년간 놀라운 작품들을 꾸준히 제작해왔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이러한 작품들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자 하며, 영국 관객이 한국 영화의 풍부한 유산을 접할 수 있는 완벽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상영작 목록은 1960년대의 황금기에서 유현목 감독의 네오리얼리즘 명작 <오발탄> 등 13편, 뉴 코리안 시네마에서 정재은 감독의 청춘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등 17편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10월~11월 상영작 13편이 공개되었으며, 12월 상영작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영화 상영과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가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 <오발탄> 상영 후 기획전 프로그래머인 최영진과 고란 토팔로빅(Goran Topalovic)이 참여하는 대담으로 기획전을 소개하고, <여편사> 등 7편 상영 전 프로그래머가 영화 소개를 진행한다. 또한, <돌아오지 않는 해병> 해외판에 대한 강연과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을 특별히 모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쉬리> 스틸



▲<접속> 스틸



▲<지구를 지켜라> 스틸



▲<고양이를 부탁해> 스틸

□ 한국영상자료원 디지털복원 사업 결과물 다수 포함

이번 기획전에는 영상자료원이 2007년부터 시행한 디지털복원 사업의 결과물들이 다수 포함된다. 디지털복원작은 <오발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12편이 있다. 그 외에도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등 디지털 리마스터판 5편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쉬리> 4K 복원판과 <접속> 4K 리마스터판을 비롯해, 국외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작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 그리고 1960년대 황금기의 한국영화 중 작년에 별세한 김수용 감독의 모더니스트 클래식 <안개>를 비롯해 <돌아오지 않는 해병>, <춘몽>, <살인마>,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등 5편은 영국에서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도 한국고전영화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황혼의 검객> 등 6편은 영상자료원 컬렉션의 35mm 프린트로 상영될 예정이다.

□ 런던한국영화제 등 다양한 한국영화 관련 행사 동시 진행

이번 기획전과 동시에 BFI에서 다양한 한국영화 행사를 개최한다.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해외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영화제인 런던한국영화제의 19회를 영국 BFI 사우스뱅크에서 개최한다. 안톤 비텔(Anton Bitel)과 이은지 프로그래머가 큐레이팅한 이 기획전은 15년간의 한국여성감독의 활약을 선보이는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와 최근 한국영화 우수작을 소개하는 시네마 나우(Cinema Now) 섹션으로 나누어 총 9편을 상영한다. 부대행사로는 <관찮아 관찮아 관찮아!>의 김혜영 감독과 <막걸리가 알려줄거야>의 김다민 감독이 참여하는 여성의 목소리 포럼과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런던한국영화제는 주영한국문화원 주최로 진행된다.

또한, BFI 상설 기획전 중 가족영화를 선보이는 '가족(Family)'과 여성감독을 주제로 하는 '카메라를 든 여성(Woman With a Movie Camera)'에서도 클래식 한국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가족'에는 우리나라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영상자료원 4K 복원작인 <호피와 차돌바위>를 상영한다. '카메라를 든 여성' 상영작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BFI의 스트리밍 플랫폼 BFI Player를 통해 한국영화 약 10편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BFI 운영하는 도서관인 BFI Reuben Library에서 한국영화 관련 큐레이션을 준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BFI 홈페이지(<https://whatson.bfi.org.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프로그램 개요

<시간의 메아리: 황금기와 뉴시네마의 한국영화>
(Echoes in Time: Korean Films of the Golden Age and New Cinema)

- 일 정: 2024년 10월 28일(월) ~ 12월 31일(화)
- 장 소: BFI 사우스뱅크
- 상영작: 총 30편

10월/11월 상영작				
작품명	감독	제작년도	한국영상자료원 작업	비고
오발탄	유현목	1961	디지털 복원	
여판사	홍은원	1961	디지털 리마스터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만희	1963	디지털 복원(4K)	
춘몽	유현목	1965	디지털 리마스터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한형모	1966	디지털 리마스터	
안개	김수용	1967	디지털 복원	
황혼의 검객	정창화	1967	35mm 프린트	
접속	장윤현	1997	디지털 리마스터(4K)	
인정사정 볼것 없다	이명세	1999	디지털 복원(4K)	
쉬리	강제규	1999	디지털 복원(4K)	
공동경비구역 JSA	박찬욱	2000	-	타 기관 작업 디지털 리마스터(4K)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2001	-	타 기관 작업 디지털 리마스터(4K)
와이키키 브라더스	임순례	2001	-	타 기관 작업 디지털 리마스터(4K)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2003	디지털 복원(4K)	

※ 12월 상영작 추후 공개 예정

[참고자료] 관련 기관 로고

